

“광주서 배운 5·18 정신, 해외 친구들과 나눠 뿌듯”

시교육청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나눔 행사
올해 16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 활동 경험 등 소개

올해 광주시교육청의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과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은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과발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과 이도현 학생과 송원영교 최서운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과발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

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 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영교 최서운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 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광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 참가 대상여고 학생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성장과 성정의 기회를 얻었다. 이 경험은 시험 성적에 머물던 시선을 넓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다”며



광주시교육청이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에서 참여학생들이 관계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제교류가 아이의 변화와 진로, 자존감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점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광주교육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는 4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독서·역사·민주·인권·평화 등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 교류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인 5·18정신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하며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나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한여농 전남연합회, 11년째 김장김치 나눔행사

담근 김장김치 200박스

복지시설·소외층 전달

전남도는 (사)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회장 김매숙)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김문수 농수산위원장 등 농수산위원회 위원,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홍영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 오재근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한여농 회원들과 함께 담근 김장김치 200박스는 광양 시니어클럽, 무안 소견원, 신안 1004보금자리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비롯해 도내 160가구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

김매숙 회장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2025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가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김장김치가 온정과 행복의 상징이 돼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전남

이 되길 기대한다”며 “한여농 회원들께서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과 전남산 배추 소비 촉진에 앞장서주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여농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째 김장김치 담그기·나눔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35개소, 1510가구의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영광교육지원청 다문화학생예술동아리 ‘락(樂)뮤(Mu)’가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1회 정기공연 ‘타오르는 불꽃으로’를 개최했다.

천년의 빛 영광, 민주주의 불꽃 노래하다

다문화학생예술동아리 ‘락뮤’, 제11회 정기공연 성료

영광교육지원청 다문화학생예술동아리 ‘락(樂)뮤(Mu)’가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1회 정기공연 ‘타오르는 불꽃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영광군의회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 10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해 호응을 보였다.

공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서면 축하사를 보내 락뮤의 활동을 격려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락뮤는 예술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생의 가치를 아이들 마음에 심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다”며 “전남을 넘어 국회와 교육부까지 감동시킨 모범사례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 공연작 ‘타오르는 불꽃으로’는 제주 4·3사건, 10·19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2024년 12·3 내란 등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 여정을 하

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형 뮤지컬이다.

학생 배우들은 시대별 청년들의 고뇌와 용기를 노래하며 민주주의의 불꽃이 오늘 우리의 평화로 이어졌음을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합창곡 ‘아침이슬’이 울려 퍼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편 2015년 창단한 락뮤는 영광교육지원청 산하 다문화학생예술동아리로, 다문화·일반 가정 학생이 함께 참여해 뮤지컬과 밴드 연주를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 문화를 만들어왔다.

초기에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소규모 공연으로 출발했지만 전남도교육청·영광군·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청소년 예술동아리로 성장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차승세 부대변인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차승세 중앙당 부대변인(사진)이 정청래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당대표 정무특보는 당대표가 주도하는 전략·정책 기획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고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보좌하는 역할로 국회, 정부, 시민사회, 지역 등 다양한 채널과의 정무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차승세 신임 당대표 정무특보는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 광산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인제혁신영입위원장, 광주노무현시민학교장을 맡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팀장과 광주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조직 및 메시지 기획을 총괄해 전략기획·정책·조직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로 인정받아 왔다. 차승세 신임 당대표 정무특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외지역 미래 꿈나무들 ‘과학문화’ 향유

광주과학관·광주과학관후원회
별빛천문대에서 천체 관측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후원회장 김홍균)와 ‘2025 과학꿈나무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과학꿈나무 초청행사는 과학문화 소외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전남·전북 지역의 초등학교,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6개 기관의 초등학교와 인솔자 1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3월 순창 동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 고흥도덕초등학교, 전주호성보육원, 지난 15일 전주태평지역아동센터와 군산옥구지역아동센터, 군산두드림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과학꿈나무 초청행사는 미래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목표로 삼·도서벽지 등 과학문화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무료로 과학관으로 초청해 전시·교육·천체관측 등을 체험하는 1박 2일 숙박형 과학캠프로 구성됐다.



광주과학관은 최근 광주과학관후원회와 ‘2025 과학꿈나무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천문 레크레이션, 트릴러 패스 과학관 탐방(본관·인공지능관·어린이과학관), 3D펜 디자이너, 아두이노 피아노 만들기, 네온사인 별빛 만들기 등 다양한 과학 주제 교육활동으로 구성돼 참가 학생들에게 풍부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천문대에서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구경 1.2m)의 반사망원경을 활용한 밤하늘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행성·달 등 천체를 직접 관측하

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기현 과학교육실 연구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등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진로탐색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광주과학관과 후원회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제경 기자 view2018@

서부경찰, 기초질서 확립 합동캠페인 펼쳐

광주 서부경찰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

서부경찰은 20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서구 주월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굣길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서구청 교통지도과, 주월초등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건다’를 적극 홍보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다”며 “유관기관 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